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7. 1(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3년차 첫날부터 민생 챙기고, 현안 해결 위해 광폭 행보** **〈 포항 영일만에서 ~ 총리실 국회까지 숨 가쁜 일정 소화 〉** 이른 새벽 포항 죽도시장 위판장, 영일대해수욕장 찾아 상인, 주민 격려 국무총리, 균형발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만나... 신공항 이전 특 별지원 요청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등 만나... 2021년 국비 예산 대폭 반영 건의	정책기획관	
② **경북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성과확산 등 1천354억원 규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철강산업 재도약 디딤돌 역할 기대 ※ 7. 2일(목) 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 산업과	
③ **경북도,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휩쓸어** 농식품부 주최, 농식품 수출 경진대회 상위권 석권 - 광역자치단체부 경북도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부 김천 대상, 상주·청도 우수상 수상 10개소 중 4개소가 경북도, 도 농식품 수출 정책 전국 최고 증명	농식품유통과	
④ **경북도민 누구나 울릉도·독도 여객선 최대 50% 할인** 7.1일부터 울릉·독도 여객선 이용 시 운임 30% 도비지원 성수기 월~목 할인, 비수기 매일 할인 적용, 도서지역 경기활성화 기대	독도해양 정책과	
⑤ **청년기업 다 모여라. 청년문화 프리마켓 개최** 볼거리, 먹거리, 청년기업 제품 한자리에 다 모았다 도내 청년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청년 마켓문화 형성	청년정책관	
⑥ **산업고도화를 위한 경상북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7.7일부터 한 달간,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5천여 개 대상 산업정책, 인력수급분석, 산업구조 분석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빅데이터 담당관	
⑦ **코로나로 지친 일상, 신비의 섬 울릉도가 치유합니다!**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울릉도 2년 연속 선정 방역 지침 준수는 필수! 언택트 힐링 여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해양레저 관광과	
⑧ **경북이 인공지능 산업 선도지역으로 우뚝 선다!** 우수한 인공지능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해 포스텍 인공지능 대학원 개원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지를 천명! 인공지능 연구원 개원	4차산업 기반과	
⑨ **2020년도 새마을지도자대학 개강** 새마을지도자 교육생 114명 입학식, 3개월간 새마을 전문과정 교육	새마을봉사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 '20. 7. 1.(수)】	담당부서	정책기획관실		
		작 성 자	기획관	정성현	
			팀 장	안성렬	담당	금두연
		연 락 처	054-880-2115	C·P	***-****-1691

이철우 지사, 3년차 첫날부터 민생 챙기고, 현안 해결위해 광폭 행보

〈 포항 영일만에서 ~ 총리실, 국회까지 숨 가쁜 일정 소화 〉

- 이른 새벽 포항 죽도시장 위판장, 영일대해수욕장 찾아 상인, 주민 격려 -
- 국무총리, 균형발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만나... 신공항 이전 특별지원 요청 -
* 대구경북 행정통합, 영일만 대교 건설 등 현안 함께 설명, 지원 부탁
-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등 만나... 2021년 국비 예산 대폭 반영 건의 -

취임 3년차를 맞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걸음이 첫날부터 분주하다.

이 지사는 **7월 1일(수) 새벽 5시경,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첫 위판을 개시하는 타종을 하고, 주변 어민·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준데 감사를 표하고,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함께 뛰자' 고 격려했다.

또한, **올해 첫 개장을 맞은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아, 각종 시설물과 백사장 등을 점검하고, 도의회 의장, 포항시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움츠러든 경북 관광이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뛰기를 기원했다.

민생 현장행보를 마친 이 지사는 곧바로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도정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건의를 위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이 지사는 국무총리실을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전부지 선정과 조기 추진에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조정·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 횡단구간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환동해 해양물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부탁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현재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당위성과 그간의 추진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광역지자체간의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7월 31일 울진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바다의 날' 행사에 총리 참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과 제도개선 과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균형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행정통합과 영일만대교 건설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도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영일만 대교 등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2021년 국비 확보를 위한 발걸음도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안도걸 예산실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내년도 국비사업에 경북의 핵심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했으며, 특히, 영일만 횡단대교, 경북 산단대개조 등 경북의 핵심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이 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등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나갔다.

이 지사는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간담회도 가졌으며, 이만희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성명서를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 추경으로 국회에 출장 온 **기재부 주요 간부들도 일일이 찾아가** 주요 사업을 하나하나 직접 설명하면서, 신규 사업의 반영과 증액을 요청하는 등 격의 없이 현장을 누볐다는 후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7기 반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른 새벽 동해바다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국비 전쟁터로 왔다." 말하고, "후반기에는 **무엇보다 도민의 민생 현장을 지키고, 경북의 미래 도약을 위해 혼신을 다해 다시 뛸 것**이다" 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지역의 주요 SOC망 확충을 위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200억원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50억원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10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500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5,00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224억원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2,500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7축) 1,500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200억원 ▶대구

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100억원을 건의하였고,

이 밖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34억원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590억원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장비 고도화 지원 80억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209억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39억원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53억원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 35억원 ▶경북권역 상급종합병원 구축 274억원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R&D 예산에 지원을 요청했다.

※ 7. 2일(목) 조간(온라인은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1(수)】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소재부품산업과			
		작 성 자	과 장	조 현 애		
			사무관	신명섭	주무관	권경진
		연 락 처	054-880-2463	C·P		

경북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성과확산 등 1천354억원 규모 -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철강산업 재도약 디딤돌 역할 기대 -

경상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과 구조고도화를 위해 역점 추진해 온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하 철강예타)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내년부터 경북, 전남, 충남 등 철강산업 주요 거점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철강예타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천354억원(국 924, 지 103, 민 327)이 투입되어, 철강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등을 통한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지원, 성과확산이 다각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철강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에서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형 기초소재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7년 5월 '포항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정부 대선공약 반영을 시작으로,

산업부·포항시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강예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수정 작업을 거듭해 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가시적 성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업은 향후. 연구개발 및 산업공유

자산 체계구축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자체적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미래산업 대응을 위해 구조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요조사를 반영해 세부과제가 기획되었으며, R&D 실증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및 실증지원, 산업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성과확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 철강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시행착오 감소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단축 및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 중소철강사의 시장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품목 확대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순환체계 >



철강예타 사업은 그간 정부 대선공약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예타 통과까지 많은 부침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기획 초기, 지역 기반의 사업내용 및 과제 중복성 문제 등으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작년 4월, ‘국회철강포럼’에서 경북·전남·충남 등 전국 19개 기관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남·충남 등 협력지역과 사업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당위성 확보는 물론 중앙부처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함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에게 기회마다 적극 건의하고 관계부처 실국장들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도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강조하며 경상북도의 사업 추진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철강 예타가 통과되어 지역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철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되었다” 고 밝히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기까지 노력해준 산업부, 과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포항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철강산업이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여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1(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 성 자	과 장	설 동 수	
			팀 장	성명숙	주무관 안수영
		연 락 처	054-880-3340		

경북도,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휩쓸어

- 농식품부 주최, 농식품 수출 경진대회 상위권 석권 -
-광역자치단체부 경북도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부 김천 대상, 상주청도 우수상-
- 수상 10개소 중 4개소가 경북도, 도 농식품 수출 정책 전국 최고 증명 -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6월 30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 '제1회 농식품 수출 우수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부 최우수상을, 김천시가 기초자치단체부 대상, 상주시와 청도군이 나란히 우수상을 차지하며 전국 10개 수상 자치단체 중 4개 휩쓸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정책이 전국 최고임이 증명됐다.

경진대회는 전국 자치단체 중 예선을 통과한 10개 지자체(광역 4개소, 기초 6개소)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1차 대국민 호감도 평가를 거쳐, 6월 30일 2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수출확대를 위한 '신개념 과일 종이트레이'를 개발해 그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으며, 김천시는 달콤하고 망고향이 풍부한 샤인머스켓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수출 증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상주시는 해외 현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한 '노출 극대화형 미니 홍보관 운영'으로 포도, 곶감 등의 홍보효과를 높였고, 청도군은 수출 유망품목으로 떠오르는 감말랭이 등 신규 수출상품 개발로 수출확대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 참고(수상결과)

- 광역자치단체부 : 대상 충청남도, 최우수상 경상북도, 우수상 충청북도, 전라남도
- 기초자치단체부 : 대상 김천시, 최우수상 논산시, 군산시, 우수상 상주시, 청도군, 보성군

특히, 경상북도의 ’신개념 과일트레이’는 사과 유통과정에서 30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발포폴리에틸렌(스티로폼) 트레이의 압상(눌림상처) 문제를 기능성 종이로 대체해 획기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수출과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 친환경정책 확산에 따라 향후 급속히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2011년 1억불 수준이던 농식품 수출실적이 2017년 5억불을 돌파한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억불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 경진대회를 통해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역량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확대 시책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1(수)】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독도해양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장 채 식	
			팀 장	김두철	주무관 정영은
		연 락 처	054-880-7758		

경북도민 누구나 울릉도·독도 여객선 최대 50% 할인

- 7.1일부터 울릉·독도 여객선 이용 시 운임 30% 도비지원 -

- 성수기 월~목 할인, 비수기 매일 할인 적용, 울릉도 경기활성화 기대 -

경상북도는 7월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민 또는 외국인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여행 시 일반석 운임의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선사에서 자체 추가할인을 할 경우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은 성수기(4월에서 9월까지)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지원되고, 비수기(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에는 모든 요일에 지원된다. 선사 자체할인의 경우 극성수기 일부기간과 성수기 주말·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선사마다 차이가 있다.

성수기, 비수기 차등지원을 통해 비수기에 도민 관광객을 유도해 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수기에 집중되는 여행객 분산을 통해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선 운임할인을 희망하는 도민은 사전 인터넷 예매 후 울릉군 홈페이지에 운임할인 신청을 해야 하며, 여객터미널에서 현장구매의 경우 선표 발권 시 운임할인 신청서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시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을 즐기는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도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1(수)】	담당부서	청년정책관		
		작 성 자	과 장	박 시 균	
			팀 장	이배일	주무관 백종성
		연 락 처	054-880-2764		

청년기업 다 모여라. 청년문화 프리마켓 개최

- 볼거리, 먹거리, 청년기업 제품 한자리에 다 모았다 -
- 도내 청년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청년 마켓문화 형성 -

경상북도는 7월 3일(금)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강정고령보 디아크 광장에서 2020 청년문화축제 ‘내일은 주말’이라는 명칭으로 프리마켓을 연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이 어려운 청년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아이디어 상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지역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기업 제품의 직거래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의 문화공연과 체험부스, 먹거리 등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참여기업은 (사)경북청년CEO협회 회원, 청년사회적기업, 청년농부 등 30개 기업이 참여하며, 참여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주요 판매품목은 아이디어 상품인 휴대용 신발살균기, 어린이 안전용품과 천년초 분말, 과일주스, 손소독제, 원목 도마, 천연화장품, 농산물 등 청년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며, 시중 판매 가격보다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함께하는 청년문화공연은 어쿠스틱 보컬 가객 ‘사필성’, 퓨전밴드 ‘일 포스티노’, 해금과 보컬의 국악공연 ‘김수진, 김소영’, 매직&풍선 아티스트 ‘김영래’가 출연하며, 이외에도 무대게임 등 레크레이션 시간과 포토존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먹거리로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새우꼬치, 스테이크, 분식, 아이스크림, 타코야끼 등 다양한 음식의 푸드트럭 6대도 함께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등 침체된 상황에서 청년문화공연과 문화마켓을 통해 경북 청년들의 에너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활력을 전달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도에서는 청년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역민들에게도 청년기업의 사기 진작과 희망메시지 전달을 위해 청년기업제품에 많은 관심과 구매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사진별첨〉

참고

『2020년 청년창업기업 프리마켓』 운영계획

◈ 도내 청년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을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들의 마켓문화 형성
◈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마련으로서 경북청년문화 창출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20 청년문화축제 '내일은 주말'

❍ 일　　시 : 2020. 7. 3.(금) 16:00~22:00

❍ 장　　소 : 강정고령보 디아크광장 일원

❍ 인　　원 : 1,000명

❍ 참여대상 : 도내 청년창업기업 30개 업체, 푸드트럭 6대

- 경북청년CEO협회원 기업, 청년농부, 청년사회적기업, 대구청년기업 등

❍ 주　　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경상북도청년CEO협회

❍ 주요내용 : 청년창업기업 문화행사 및 프리마켓 운영

❍ 행사장 배치도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1(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빅데이터담당관		
		작 성 자	담당관	이 정 우	
			팀 장	홍정란	주무관 김수철
		연 락 처	054-880-2142		

산업고도화를 위한 경상북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 7.7일부터 한 달간,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5천여 개 대상 -

- 산업정책, 인력수급분석, 산업구조 분석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경상북도는 광업·제조업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종사자수 10인 이상 이면서 지난해 조업(생산) 실적이 있는 경북 도내 5천여 개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로 사업체 일반현황과 종사자수, 출하액(매출액) 및 재고액, 유·무형자산 등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요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면담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며, 사업체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조사과정에서 수집되는 사업체의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응답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결과는 내년 2월 중 공표할 예정이며, 도정수립 및 산업정책, 중소기업 인력수급분석, 산업구조 분석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제조업 분야 종사자수는 24만9천333명으로 전국대비 8.4%를 차지하고, 사업

체수는 5천188개로 전국대비 7.4%로 경기, 경남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업·제조업조사는 지역산업구조 개편, 고도화 전략수립 등을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코로나19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없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1(수)】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레저관광과		
		작 성 자	과 장	김 학 조	
			팀 장	김철호	주무관 김경현
		연 락 처	054-880-7793		

코로나로 지친 일상, 신비의 섬 울릉도가 치유합니다!

-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울릉도 2년 연속 선정 -

- 방역 지침 준수는 필수! 언택트 힐링 여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울릉도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연·생태 등 관광자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오고 있다.

섬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걷기 좋은 섬, 풍경 좋은 섬, 이야기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주제로 전국 33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했다.

신비의 섬으로 선정된 울릉도는 태초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한 청정바다와 천혜의 자연이 주는 친환경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비대면 힐링 여행지로 최적의 섬이다.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울릉 여객선 일반석 운임을 30% 할인하며, 독도전망케이블카 등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7월 19일까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휴가철 울릉도를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울릉도는 역사·문화·자연·생태 등 소중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며, “독도와 연계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게 휴가철을 맞

아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관광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분들에게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사진별첨〉

참고 1 **신비의~섬 울릉도 현황**

□ 섬 개요

○ 울릉도 기본현황

- 위　　치 : 경상북도 동북단 동해상에 위치한 섬
- 행 정 구 역 : 1읍 2면(울릉읍, 서면, 북면)
- 면　　적 : 72.86㎢
- 가구수/인구 : 5426가구/9617명
- 주 요 특 징
  - ㅇ 외형상 불규칙한 5각형으로 4개의 갑각이 돌출되어 있으며, 섬 중앙에 최고봉인 성인봉(986.7m)이 솟아 있음.
  - ㅇ 나리분지를 제외하면 울릉도의 평균 경사도는 25° 로서 평지가 거의 없음.

□ 관광정보

○ (관광코스)

- 관광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활동적인 여행
  - ㅇ 1일차 : 울릉도 도착 → 내수전일출전망대 → 봉래폭포 → 약수공원 → 도동, 저동항 야경
  - ㅇ 2일차 : 도동 → 육로관광 → 나리분지 → 성인봉 등반 → 도동
  - ㅇ 3일차 : 서면 → 태하등대 → 남서일몰전망대
  - ㅇ 4일차 : 죽도관광 → 도동시가지 관광 → 울릉도 출발

-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 ㅇ 1일차 : 울릉도 도착 → 차량으로 육로관광하며 북면으로 이동 → 나리분지 및 북면지역 관광
  - ㅇ 2일차 : 나리분지 → 성인봉 등반 → 도동 도착 → 서면지역 관광
  - ㅇ 3일차 : 내수전일출전망대 → 봉래폭포 → 해상관광 → 해안산책로 → 울릉도 출발

○ (놀거리)

▶ 해상관광(유람선 섬일주) : 도동항→사동→통구미→남양→구암→태하→현포→공암→추산→천부→삼선암→관음도→죽도→저동항→도동항

▶ 성인봉 산행 :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987.6m)으로 한국 10대 명산이자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되어 있음

ㅇ 대원사 코스(5시간) : 대원사 → 팔각정 → 성인봉 → 신령수 → 나리분지

ㅇ KBS울릉중계소 코스(5시간) : KBS울릉중계소 → 팔각정 → 성인봉 → 신령수 → 나리분지

ㅇ 깃대봉 코스(4시간) : 울릉천국 → 깃대봉 → 알봉둘레길 → 나리분지

▶ 트래킹 : 행남코스, 내수전일출전망대코스, 태하등대(대풍감)코스

▶ 그 외 : MTB, 야영(학포야영장, 국민여가캠핑장),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등

○ (볼거리)

- 울릉읍 : 내수전일출전망대, 저동 촛대바위, 봉래폭포, 독도박물관, 독도전망대케이블카, 울릉자생식물원, 죽도,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행남 해안산책로 등
- 서 면 : 태하 향목 관광모노레일, 남서일몰전망대, 거북바위, 태하황토굴, 수토역사전시관, 대풍감 등
- 북 면 : 현포(항), 현포고분, 천부해중전망대, 천부일몰전망대,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석포일출일몰전망대, 코끼리바위(공암), 삼선암, 예림원(문자조각공원), 나리분지, 성인봉 등
- 그 외 : 독도 관광 / 오징어축제, 울릉해변가요제 등

○ (먹거리)

홍합밥, 오징어내장탕, 오삼불고기, 오징어물회・꽁치물회, 따개비칼국수, 산채비빔밥(취나물, 부지갱이, 참고비 등) 등

○ (숙박시설)

국민여가캠핑장, 학포야영장, 여관・모텔・민박・게스트하우스, 관광펜션 및 호텔 약 97곳

○ 울릉도 오시는 길

운항로	선 명	도착항구	소요시간	예약문의
포항 ↔ 울릉	썬라이즈호	저동	3시간 30분	대저건설 ☎1899-8114
	우리누리호	사동	3시간 20분	태성해운 ☎1688-9565
후포 ↔ 울릉	씨플라워호	사동	2시간 20분	제이에이치페리 ☎1644-9605
묵호 ↔ 울릉	씨스타1호	사동	3시간	씨스포빌 ☎1577-8665
	씨스타3호	도동	3시간 30분	
강릉 ↔ 울릉	씨스타5호	저동	3시간	
	씨스타11호			

※ 여객선 운항시간은 기상상황 및 (비)성수기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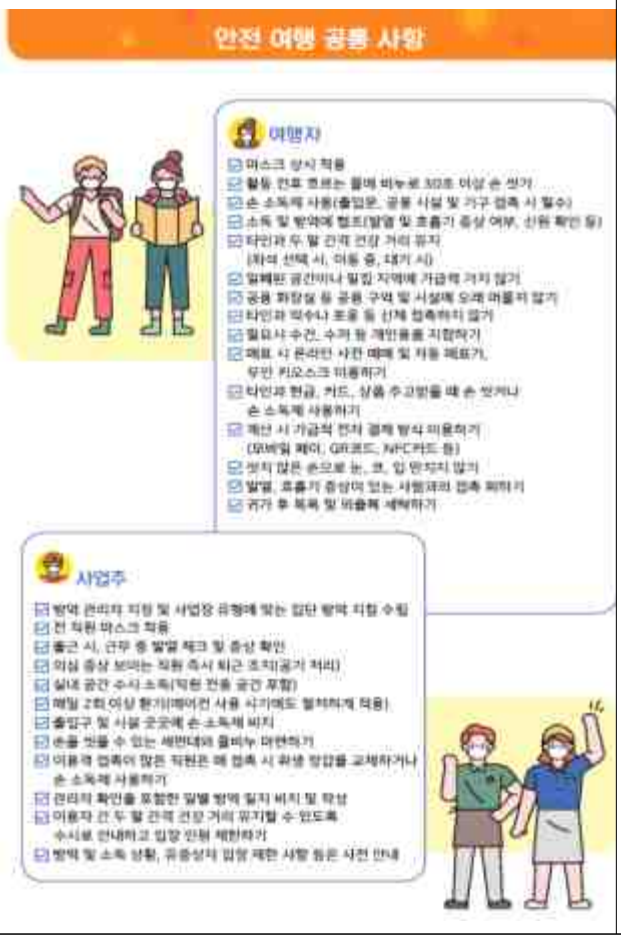
○ 위치도



참고 2 **안전한 섬 여행을 위한 방역 수칙**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1(수)】	담당부서	과학산업국 4차산업기반과		
		작 성 자	과 장	박 인 환	
			팀 장	홍인기	주무관 오혜림
		연 락 처	054-880-2476		

경북이 인공지능 산업 선도지역으로 우뚝 선다!

- 우수한 인공지능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해 포스텍 인공지능 대학원 개원 -

-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지를 천명 ! 인공지능 연구원 개원 -

포스텍이 7월 1일 인공지능연구원에서 인공지능대학원과 인공지능연구원 개원식을 갖고 인공지능 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날 개원하는 인공지능대학원은 작년 9월 경북도와 포스텍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대학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경권 유일의 인공지능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인공지능연구원은 지역의 인공지능 거점센터로 경북도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추진한 정보통신연구소를 확대·개편해 이날 개원하게 되었다.

인공지능대학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3년(5년간) ※ 과기부, '인공지능 대학원 2차 공모' 선정('19. 9월)
○ 총사업비 : 24,000백만원(국비 9,000, 도비 1,500, 포항시비 1,500, 기타 12,000)
※ '20년도 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300, 시비 300, 기타 2,400)
○ 사업주체 : 과기정통부, 경북도, 포항시
○ 수행기관 :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 사업내용 : 인공지능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지원

개원식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장경식 도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등 정부와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텍 김무환 총창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포스텍에서 인공지능 연구원의 현황과 정부·기업과 함께하는 산업혁신 비전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그동안 인공지능연구원의 전신인 정보통신연구소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경 혁신인재 양성사업(HuStar)’을 통해 경북 AI/SW 교육을 주관하여, 지역기업에 우수한 인공지능 인력을 공급해왔다. 특히 2017년 경상북도 인공지능 거점센터로 지정받아 도와 협력해 인공지능요소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재직자·경영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했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격상된 만큼 기업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역혁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북도와 협력이 기대된다.

2019년 9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대학원은 대경권의 유일한 고급 인공지능 인력양성 기관으로, 2023년까지 고급 인재 2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텍의 우수한 교수진의 역량과 과기정통부·경상북도·포항시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가 및 지방,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

* 연간 50명의 신입생 선발 예정(석사 과정 30명,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20명)

이날 행사에서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및 인공지능연구원 개소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인 인력양성과 R&D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며, “경상북도는 기존 인공지능 사업으로 축적된 노하우에 더해 올해 말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도와 대학, 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빅데이터 구축-인공지능 기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추후송부>

참고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연구원 개원 행사 개최계획(안)

□ 추진배경

○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및 인공지능연구원 개원을 기념***하여 개원식·현판식 및 전시 및 체험, 취업박람회 등을 연계하는 행사를 개최

* 올해 3월 개원 행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일정 순연

** 인공지능 대학원 공모사업 선정('19.. 9월) 및 기존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를 인공지능연구원으로 확대 개편('20. 2월)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 추진

□ 행사 개요

○ 일　　시 : 2020. 7. 1. (수), 09:40~11:20

○ 장　　소 : 포항공과대학교 본관 3층 및 인공지능연구원 등

○ 참 석 자 : 道 경제부지사, 과기정통부 2차관, 경북도의회 의장,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IITP 원장, 기업대표 등 산학연 관계자

○ 주요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09:40~10:05	25′	▶ 내빈 도착 및 **환담**	총장 응접실(대학본관 3층)
10:10-10:20	10′	▶ 환영사(총장)	인공지능연구원 1층 중강당
10:20-10:35	15′	▶ **축사** * 축사순서 : 과기정통부→IITP→**경북도**→도의회→포항시→시의회)	-
10:35-10:55	20′	▶ 경과보고 및 대학원/연구원 소개	-
10:55-11:00	5′	▶ 폐회 및 **기념촬영**	-
11:00-11:20	20′	▶ **현판식(테이프 커팅)**	인공지능연구원 앞
11:30~12:00	30′	▶행사장 투어 (성과 전시 및 체험, 취업박람회 등)	포스코국제관 로비(1F)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7. 1(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작 성 자	과 장	남 창 호	
			팀 장	조영목	주무관 장화영
		연 락 처	054-880-2876		

2020년도 새마을지도자대학 개강

- 새마을지도자 교육생 114명 입학식, 3개월간 새마을 전문과정 교육 -

경상북도와 김천대학교는 7월 1일 김천대학교 본관에서 2020년도 새마을지도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교육생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착석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마을지도자대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예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경북도가 김천대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전문 교육기관이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3개월간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새마을정신의 이해,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내용과 방향, 새마을운동 세계화, 새마을지도자 리더십 함양, 지역개발 등의 전문과목과 함께 지역갈등관리, 심폐소생술, 기초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배우게 된다. 또한 새마을 발상지와 국·도정 시책 현장견학 등 현장학습을 통해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07년부터 새마을지도자대학을 통해 현재까지 총 2천204명의 새마을지도자를 배출했으며, 일선 현장에 투입된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 핵심리더로서 역할하며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추후송부>

참고

2020 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대학 입학식

행사개요

○ 일　　시 : 2020. 7. 1.(수) 10:00

○ 장　　소 : 김천대학교 본관(6층 대학극장)

○ 참　　석 : 120명 정도(입학생 114명, 초청인사 등)

- 김재광 김천 부시장, 도의원, 윤옥현 총장, 김순희 평생교육원장, 道새마을회 회장단, 시·군 회장 등

○ 주요내용 : 의식행사, 기념사진 촬영 등

【2020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학 교육개요 – 도비 1억원】

- 기간/장소 : 7. 1. ~ 9. 23.(3개월, 주 1회) / 김천대 평생교육원
- 교육내용 : 새마을운동 이해 및 추진내용, 지도자 리더십 및 소양교육, 현장학습

행사진행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 내빈소개	사회:대외협력실처장
10:05~10:10	5′	• 개회 및 국민의례	
10:10~10:15	5′	• 환 영 사	김천대 총장
10:15~10:20	5′	• 격 려 사	새마을봉사과장
10:20~10:35	15′	• 축　　사	도새마을회장, 김천부시장, 도의원
10:35~10:40	5′	• 새마을노래 제창 및 폐회	
10:40~10:50	10′	• 기념사진 촬영	대학본관 전정(야외)